

애플, '비츠 필 XL' 스피커 리콜... 배터리 과열·발화 우려 등

제품위해 뉴스



제품 위해 뉴스 - 국내자료



냉난방기기로 인한 화재	KBS 등	'15.5.16 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주 제주시 소재의 한 어린이집에서 천장 선풍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 ○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(1억 7,000만원의 재산 피해) ○ 경기 수원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(600만원의 재산 피해) ○ 인천 계양구 소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전기장판의 노후화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(16명 대피) ○ 대구 남구 소재의 한 노인요양원 입원실에서 천장형 선풍기의 모터과열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(13명 대피, 24만원의 재산 피해) 		
가전제품으로 인한 화재	OBS 등	'15.5.16 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기 안양시 소재의 한 철물점에서 텔레비전의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(2,000만원의 재산 피해) ○ 서울 송파구 소재의 제2롯데월드 지하 2층 마트에서 식품 냉장고 모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(70여명 대피, 40만원의 재산 피해) ○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단독주택 2층에서 김치 냉장고가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(90만원의 재산 피해) 		
기타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	뉴시스 등	'15.5.17 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강원 춘천시 소재의 국군춘천병원 약품 창고에서 멀티탭 콘센트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(4,600만원의 재산 피해) ○ 충남 서천군 소재의 한 주택에서 휴대용 써치 충전 중 충전식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 발생(260만원의 재산 피해) 		



☞ **美 유아용 카시트에서 발암물질, '최악의 카시트는?'**

동아일보

'15.6.8

- 미국의 비영리 환경기관 '에콜로지센터(The Ecology Center)'는 최근 "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15종의 카시트를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의 약 73%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되었다"고 발표함
- 조사 결과, 최고의 카시트는 브라이텍스(Britax)의 '프론티어'와 '파크웨이', 최악의 카시트는 그라코(Graco)의 '마이 사이즈 65'가 꼽혔음
- 이번에 발견된 유해물질은 브롬(bromine)과 염소(chlorine), 납 등으로,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학습능력 저하, 갑상선 기능 및 생식능력 저하, 발암 등의 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, 열과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독성이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남
- * 이들 제품 가운데 상당수가 국내에서도 시판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함

☞ **애플, '비츠 필 XL' 스피커 리콜...배터리 과열 · 발화 우려**

KBS

'15.6.4

- '애플'은 3일, '14년 인수한 '비츠 일렉트로닉스'의 스피커 'Beats pill XL'에서 배터리 과열로 인한 발화 위험성이 있다며 해당 제품의 리콜 계획을 발표
- 이 제품에 대한 8건의 과열 사례 신고건 중 1건은 소비자가 손가락에 화상을 입음
- 리콜 대상 제품은 지난 '13.11월에 출시하여 미국에서 22만 2천대, 캐나다에서 1만 1천대가 판매(국내 판매량은 알려지지 않음)

☞ **호주 시드니 지역 삼성전자 세탁기에서 3차례 화재**

시드니 모닝헤럴드

'15.5.23

- 호주 언론은 23일(현지시간), 호주 시드니 지역에서 삼성전자 세탁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이번주 3차례 접수되었음을 보도함
- 22일 오전 시드니 서부 세인트 메리스의 한 주택에서 사용 중이던 삼성 세탁기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, 지난 20일에도 2대의 삼성 세탁기에서 화재가 발생함
-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제품들은 '13년 4월, 삼성전자가 전기접속부 이상으로 인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제품으로, 리콜 이후에도 이번을 포함해 모두 20차례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5차례는 지난 2개월간 발생함
- 호주에서 판매된 이들 제품 15만대 중 8만 3천여대의 경우, 리콜을 통해 결함이 바로 잡히지 않아 추가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
☞ **닌텐도 게임기 '위유', 캠핑카 화재 원인?**

ZDNet Korea

'15.5.25

- KKTV 등 외신은 22일(현지시간), 미국 콜로라도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의 캠핑카가 '닌텐도'의 콘솔 게임기 '위유(Wii U)'의 과열로 인해 전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함
-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캠핑카에서 '위유'로 '넷플릭스'를 시청한 후,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주장
- 콜로라도 소방당국 역시 닌텐도의 게임기 '위유'가 화재의 시발점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, 조사 결과에 따라 닌텐도는 게임기 안내 경고문 미비에 따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임
- * 화재로 전소된 캠핑카의 주인은 '위유'의 안내문에는 사용 후 플러그를 뽑으라는 경고 문구가 없어 신경 쓰지 않았다고 강조

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간 제품안전 동향